

한국어촌어항협회로 첫 출발 업무 영역 재정립, 사업 확대 추진



■ 한국어촌어항협회 출범 및 역량 강화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제정공포된 어촌·어항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 한국어항협회에서 한국어촌어항협회로 전환하고 법정 기능도 기술개발, 조사, 연구, 설계, 환경정비 등 어촌 어항 어장까지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어촌관광 활성화 업무를 추가하였다.

이와함께 어촌·어항법 시행령과 어촌어항법 시행규칙에 어촌어항관련 정부업무 수탁의 근거를 확대하여 협회의 역량을 강화했다.

■ 조직 확대 및 경영혁신

배평암 현 회장은 취임 3년만에 결산수지를 50여억 원 수준에서 140여억원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으며 재정자립 기반을 크게 향상시켰다. 직원 수도 28명에서 51명으로 늘었고 사무실도 확장하는 등 근무분위기도 크게 개선되었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제를 팀제 및 사업

부제로 재편했다. 과거 1실 4부 1연구소 체제에서 3본부 2실 2사업단 7팀 체제로 개편, 새로운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했다.

경영혁신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회장의 공모제 및 추천제도를 도입하였다.

■ 사업 확대

협회의 주요 업무인 기술개발, 연구, 조사 분야가 크게 강화되었다. 상무이사를 중심으로 전문 인력을 보강하여 국가어항 배후부지 이용계획 수립, 어항수요 및 지정기준 산정 연구, 어항항공사진 촬영 및 확보집 제작, 해안방재편람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국가어항시설물 안전점검을 최초로 실시하였고 외국과의 기술교류 협력증진도 더욱 강화했다.

어촌어항 및 연안수역의 정화 정비·조사 업무도 활발히 추진하였으며, 특히 인천 앞 바다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인공어초 사후 관리 조사 폐기물 수거 사업,



연안환경 조사 사업도 새로이 추진하였다.

내나라 여행 박람회 참가, 아름다운 어촌 100선 화보집 제작 등 어촌관광 활성화 및 문화 홍보 사업도 활발히 시행하였으며 특히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를 무난히 수행하여 어촌관광 전담 단체로 자리 매김하였다. 또 '수요일엔 수산물을 먹읍시다' 캠페인을 진행,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 향후추진 사업

1. 어촌 어항 어장 정보지식기반의 확립

지난해 어촌·어항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어촌어항협회는 명실공히 수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전문 단체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에 설계·조사·연구 활동을 강화하여 어촌 어항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게 될 어촌·어항기초조사와 어촌 종합 개발 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어촌 어항 모니터링과 관련 도서 발간도 추진한다. 이와함께 외국과의 기술교류 및 협력증진도 꾸준히 진행시킬 예정이다.

2. 어항관리의 효율화

지난해 처음 용역업무로 실시한 105개 국가어항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를 올해에는 정부 수탁업무로 전환,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매몰현황 등 어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 어항의 유지준설 업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어선의 입출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어항내 매몰 토사에 대한 제거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3. 어촌·어항 및 연안수역 환경 개선

그동안 어항과 어장의 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는 어항청소선 7척과 다기능 해양폐기물 수거선은 올해 전국 150개 항에서 800일을 운항할 계획이며 이들 선박들의 안전관리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연안수역의 정화정비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사업, 해양폐기물 수매사업, 침체어망 인양사업, 인공어초 사후관리 조사 및 폐기물 수거사업, 어장환경 정비사업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이외함께 연안 환경에 대한 조사 사업도 활성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4. 어촌·어항의 문화·관광 진흥

한국어촌어항협회로 전환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

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 큰 성과를 이룬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의 내실을 기하고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어촌관광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며 해외어촌관광조사단 파견도 추진한다.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으로 '수요일엔 수산물을 먹읍시다' 캠페인을 더욱 확대 보급하고 할인마트와 연계하여 어촌 수산물 특산전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홍보강화 및 문화창달을 위해서는 기존 기술정보지 발간의 내용을 충실히 하고 어촌어항 문화의 지속적 발굴 사업과 홍보 팸플릿 제작, 홈페이지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배평암 한국어촌어항협회 회장 연임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 3월 30일부터 3년 임기 시작



배평암 한국어촌어항협회 회장이 연임되었다.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지난 3월 14일 2006년도 정기 총회에서 차기 회장에 현 배평암 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배회장은 3월 30일부터 3년 임기의 한국어촌어항협회 초대 회장직의 업무를 시작했다.

배회장은 2003년 한국어촌어항협회 회장으로 취임하여 그동안 결산 규모를 '02년 57여억원에서 '03년 80여억원, '04년 92여억원, '05년 140여억원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내며 재정자립 기반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업무 영역을 확대하여 국가어항시설물 안전점검, 어촌기초조사,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고유업무로 확보하였고 해양 정화 사업 분야에서도 입지를 강화시켰다. 이에 따라 직원 수도 취임전 28명에서 51명으로 늘었다.

무엇보다도 배회장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던 어촌·어항법의 제정과 관련, 관계요로에 법 제정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득시켜 지난해 5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와함께 지난해 12월 1일에는 수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전문 단체인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탄생시켜 그동안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운영해 오던 우리나라 수산업에 큰 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배회장의 재임은 본인의 고사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촌어항 업계와 수산 관계자들이 어촌·어항법을 탄생시키는데 큰 힘을 보탤고 협회를 수산업 기반구축 전문단체로 발전시키기에 필요한 인품, 자질, 능력을 갖춘 최고경영자인 만큼 수산계 기둥으로 남아, 선진형 수산업 기반 구축에 초석을 다져달라는 간곡한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배평암 회장은 30여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수산청, 해양수산부 주요국장, 국립수산진흥원장, 차관보 등 수산요직을 두루 거쳐 관련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 및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온화한 성품으로 기획능력과 통솔력, 업무추진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학구열도 높아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해양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수산업의 이론과 실재를 겸비한 수산 전문 행정가로 정평이 나 있다.